

폐쇄된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의 미래는?

□ 국제적 관심 속에 대통령선거 치러져

-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2월 11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음.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강력한 장기 독재체제 유지와 기이한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회자되던 니야조프(Saparmurad Niyazov)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임.



- o 동국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율이 98.65%를 기록했으며, 전임 부총리이자 보건부장관이었던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ymukhammedov)가 89.2%의 득표율로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이번 선거는 지난 1992년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처음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이며 특히 복수후보(6명)가 경합하는 첫 번째 선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미 예견된 대로 이번 선거는 베르디무하메도프를 대통령직에 앉히는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었음.
- 국제사회와는 극도로 격리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르크메니스탄의 선거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이 나라 정국구도의 변화

에 따라 풍부한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열릴 것이란 기대와 이 나라를 둘러싼 지역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 때문임.

□ 베일속의 인물 베르디무하메도프 권좌에 등극

-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니야조프 전 대통령이 사망한 당일 국가안정보장회의와 각료회의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되었고, 12월 24일 치러진 장례식에서도 장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에는 의회(Majlis)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권 엘리트집단은 헌법규정을 고치면서까지 베르디무하메도프를 권좌에 옹립하였음.
 - o 니야조프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의회의장이었던 아타예프(O. Atayev)에게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캔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는 한편, 의회는 만장일치로 아타예프 의장의 해임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o 또,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의결기구인 국민회의(Khalk Maslakhaty)는 “각료회의 부의장(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가능” 조항의 삽입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출마 불가” 조항의 삭제로 베르디무하메도프가 권좌에 등극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 베르디무하메도프의 권력독점 가능성 낮은 듯

- 50세(1957년생)의 전직 치과의사인 베르디무하메도프는 1997년 보건부장관에 발탁되었고, 2001년 4월 부총리에 임명되어 5년 반 동안이나 장수한 부총리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니야조프 정권 말기에는 권력서열 2위에 있었던 것으로 관측됨.

o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¹⁾시켰던 니야조프는 반대파 뿐 아니라 2인자의 출

1) 총리와 국민회의 의장을 겸임.

현을 막기 위해 집권세력 내에서도 끊임없는 숙청을 반복해 왔음에 비춰 베르디무하메도프의 이력은 특이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베르디무하메도프가 니야조프의 친자라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음.²⁾

- 투르크메니스탄에 정통한 관측통들은 권력의 배후에 2~3개의 파워집단이 있으며, 특히 오랫동안 니야조프의 측근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레제포프(A. Rejepov)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베르디무하메도프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커다란 제약이 있으며, 자신을 권좌에 앉힌 권력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하는가와 세력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얼마나 조율을 잘하는가에 따라 그의 정치생명이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임.

□ 내부적으로 부분적인 변화에 그칠 듯

-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독특한 개성과 강한 카리스마에 입각해 추진되었던 많은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이미 선거유세 중 니야조프의 정책 중 몇 가지에 대한 수정의사를 밝혀 투르크메니스탄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o 니야조프가 엄격히 제한했던 인터넷 접근과 외국유학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2006년 2월 니야조프가 지급을 정지시켰던 연금제도의 수정 등이 그것임.
- 야당 등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세력이 전혀 없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수년 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등 CIS지역에서 연이어 터졌던 시민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정치 및 언론자유는 극도로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임.
- 천연가스 수출 수입으로 기초생활품을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흡수하며 체제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치자유화 등 정치개

2) ロシア NIS 經濟速報, No. 1386, 2007. 1. 25.

혁은 상당히 지연되고, 내부의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압력보다는 지배계층간의 갈등에서 불거질 소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투르크메니스탄을 둘러싼 주변정세의 변화압력이 커질 듯

- 투르크메니스탄의 풍부한 천연가스과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 강대국들의 각축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천연가스 수출확대를 위한 대외개방 필요성 커져

- 2005년 말 기준 BP 통계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세계 12위³⁾인 2조 9천억 m³로 나타나고 이으나, 이 수치는 구소련시절 조사된 수치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실제 천연가스 부존량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o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7조 m³, 전체 화석연료 부존량은 45조 m³를 넘는다고 호언 바 있으며, 일부에서는 천연가스 부존량이 세계 4위⁴⁾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니야조프는 강대국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철저한 자원민족주의를 고수하며 외국인투자자에 빚장을 걸어 잠근 결과, 자체 기술 및 자본 부족으로 인해 생산설비가 노후화되고 점차 천연가스 생산이 정체되어 왔음.
 - o 2001년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수출량은 640억 m³를 밑돌고 있으나, 러시아 Gazprom과의 25년 장기계약에 따라 2008~09년 중 러시아에만 800~900억 m³를 수출해야할 의무를 안고 있음.
- 천연가스 수송로의 과도한 러시아 편중으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출물량 제한, 낮은 가격 수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음.

3) 러시아,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미국, 나이지리아, 알제리, 베네수엘라, 이라크, 카자흐스탄에 이은 12위.

4) ロシア NIS 經濟速報, No. 1386, 2007. 1. 25.

- 수출물량의 약 80%는 러시아를 경유(20%는 이란 경유)하고 있으며 수출물량의 약 50%는 우크라이나로 공급되고 있으나,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저가구입, 우크라이나로는 고가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음.
-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이 지역 에너지자원 확보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투르크메니스탄은 투자개방을 통해 생산능력 향상 뿐 아니라, 이들 강대국들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과 천연가스 공급 프로젝트 발표

- 2006년 4월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부터 중국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시작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협력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 동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동부 접경지역으로부터 매년 300억 m³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나, 동 파이프라인은 에너지공급의 경쟁국인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가능성은 러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지배력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EU, 이 지역과 BTC 파이프라인의 연결 추구

- 2006년 가동에 들어간 BTC 파이프라인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그루지야의 트빌리시, 터키의 세이한을 잇는 전장 1,749km의 송유관으로 1일 원유수송 가능물량도 100만 배럴에 달하고 있음.
- 특히 BTC 라인에 러시아 영토를 우회해 카스피 해 연안의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지중해 방면으로 공급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게는 막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음.
- 미국과 EU는 카스피 해 해저를 통해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자

원을 BTC 파이프라인과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카자흐스탄과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이는 것으로 보임.

- o 지난 2월초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카스피 해를 통해 카자흐스탄과 BTC라인을 연결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며⁵⁾,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인 Tengiz유전을 운영하는 Tengizchevroil은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SOCAR)와 Tengiz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의 일부를 BTC 라인을 통해 수출기로 합의하였음.⁶⁾
- o 니야조프 사후에 미국 관리들이 빈번하게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등 미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미국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도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을 두고 이 지역 맹주를 자처하는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경쟁이 더욱 격렬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 BTC 라인



자료: Wikipedia.

□ 미국과 이란의 각축도 심화될 듯

- 미국과 이란도 투르크메니스탄의 새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쟁할 것으로 보임.

5) IntelliNews-Kazakhstan Today, 2007. 2. 6.

6) Prime-Tass, 2007. 2. 13.

- 미국 관리들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문제가 양국의 관계개선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막후에서 군사기지 제공 또는 영공통과 허용 등의 군사적 유대강화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니야조프 시절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으나, 이란도 새 정부가 최소한 미국에 기울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새 정부 관계자들은 친 러시아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을 둘러싼 복잡한 주변정세는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에게 다양한 외교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됨.

선임조사역 고재호(☎02-3779-6652)

E-mail : kohjh@koreaexim.go.kr